

“가정의 달 대목인데”... 꽃집·원에·화훼농가 ‘시들’

기름값·부자재 가격 폭등... 시민들 발길 뜰해져 일부 가게 물량 축소... “재고처리 위험 안고 장사”

가정의 달을 앞두고 '5월 대목' 특수를 누리던 원예·화훼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화훼농가는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졌고, 꽃가게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화분, 화환 받침대, 플로랄 폼을 포함한 부자재 가격 인상에 불황이 지속되면서 꽃다발이 자그만 선물 수준을 넘어 부담을 준다는 불만소리가 이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지역 실내 등유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인 2월 28일 1당 1134원이던 실내 등유 가격은 1231원으로 100원 정도 인상됐다.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역 내 화훼농가 곳곳에서 불만 소리가 터져 나온다. 원예·화훼농가는 일정 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탓에 등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전체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광주 서구 한 화훼농민 A씨는 “꽃 품종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온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18도 이상을 유지해줘야 한다”며 “화훼 농가들은 적은 평수로 기름을 때는데도 아니고 넓은 면적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단 몇 백원만 올라도 한 달이면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울상이었다. 꽃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동 사태로 인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생화 공급이 줄어든 데다 교환을 문제까지 겹치면서 꽃집을 찾는 발길은 뜰해졌다. 잇따른 약재가 이어지면서 1년 중 최대

성수기인 5월에 대한 기대도 사라진 지 오래다. 실제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원에농협이 지난달 29일 카네이션 평균 금액은 1만2439원으로 지난해 7080원 대비 5359원 올랐으며 1년 사이 75.69%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 2월 중동사태 발발 전 6973원이었던 카네이션 평균 금액은 감소세를 보이다 3월 중순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앞선 데 겹쳐서 결국 중동 사태가 장기 화환에 따라 생화 폐기물을 처리할 중량제 봉투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꽃집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꽃 가게는 물량을 전년 대

비 대폭 줄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 5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5월이 다가오면 꽃 주문이 빽빽했는데 최근에는 이틀에 한 번, 아니면 한 건도 없는 날도 있다”며 “대목인데 재고 처리 위험을 안고 장사해야 할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5월에는 가족들을 총동원해 꽃 물량을 확보하고 밤샘 포장도 진행했지만 다 옛날 얘기다. 오히려 업계 지인들 사이에서는 ‘손해나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까지 오가고 있을 정도다”고 전했다. 가정의 달 5월 성수기에 분주해야 할 화훼농가와 꽃집들이 고물가와 중동사태 여

파로 오히려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에 꽃 가격도 부담으로 느껴진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드러나면서 꽃은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 등 다른 대체재로 눈을 돌리고 있다. 30대 정모씨는 “예전에는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카네이션과 용돈을 함께 드렸다면, 올해는 용돈만 드릴 거 같다”며 “요즘은 5만원 이상 들어야 풍성한 카네이션 다발을 드릴 수 있다 보니 꽃 대신 현실적인 부분에 지출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유통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농식품부, 가정의달 맞아 가공식품 할인전 16개사 협력 라면·우유·과자 등 가공식품 4373개 대상

정부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라면·우유·과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식품기업 16개사와 함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높은 가공식품 43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58% 할인을 제공한다. 라면의 경우, 농심과 팔도가 참여해 컵라면과 봉지라면을 할인판매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몰에서

6~36% 할인한다. 빵은 삼립식품이 크림빵 보름달방 식빵 포켓빵 등을 8~37% 할인하고 풀무원이 베이글류를 11~17% 할인 판매한다. 만두는 CJ제일제당과 동원F&B, 풀무원이 참여해 5~5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게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와 식품업체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단위 소비가 늘어나는 5월에 맞춰 행사를 기획해 가게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이마트가 오는 6일까지 여행과 나들이를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수박·참외·자연산 광어 등 제철 먹거리부터 에어컨 등 여름 필수 가전과 용품 등을 빈값에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가정의 달 프로모션 ‘The Gift of LOVE’ 테마로 진행

광주신세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he Gift of LOVE’ 테마로 28일까지 특별한 프로모션을 마련한다. ‘커피박스’와 ‘페이퍼스프링’ 등 체험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사은품·리워드 증정·정관장 할인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어린이날을 맞아 ‘베이비페어’를 진행한다. 5일까지 진행되는 베이비페어에는 ‘물로’, ‘리틀그라운드’, ‘토박스’ 등 총 12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오프라인 단독 특가 상품전을 진행한다. 또 ‘블루독’, ‘뉴발란스키즈’, ‘마리메카즈’ 등 23개 브랜드 참여한 가운데 우산, 보냉백, 물통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10일까지 ‘KIDS SPECIAL BENEFIT’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본관 6층 ‘타미힐피어 키즈’ 매장에서 20~40만원 이상 구매 시 2~4만원 금액 비를 지원받게 된다. 휴가 사용 장벽을 낮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내수 관광 활성화와 장기근속 유도 효과까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사업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 SK엠앤서비스는 복지 포인트 운영과 정산 등 실무를 맡는다. 광주신세계의 참여기업 모집과 사업 총괄을 담당하며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로또 4 11 17 22 32 41

로또 1등 24명...당첨금 각 12억원

제122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11, 17, 22, 32,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4명으로 12억299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115명으로 각 41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081명으로 11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284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89만6800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도입 관광공사·SK엠앤서비스와 협약 체결...지자체 매칭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고용안정 기반 강화를 위한 휴가비 지원 사업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상의는 최근 한국관광공사, SK엠앤서비스와 함께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한 부처 협

업 모델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자율계정)'과 연계해 광주시가 추가 재정을 투입한 전국 최초 지역 주도형 휴가비 지원 모델이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제조업에 대상으로 추진되며,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를 확장해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업 부담도 일부 완화한 점

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참여 근로자는 별도의 자부담 없이 최대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휴가 사용 장벽을 낮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내수 관광 활성화와 장기근속 유도 효과까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사업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 SK엠앤서비스는 복지 포인트 운영과 정산 등 실무를 맡는다. 광주신세계의 참여기업 모집과 사업 총괄을 담당하며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